

지역사회공헌 인정기관 | 새청주신용협동조합

‘복지사회 실현’ 최종 경영 목표

서민과 중산층 조합원의 금융·생활 편의 제공 및 복지향상과 지역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목적으로 1993년 설립된 새청주신용협동조합(이사장 남민우).

세계적으로 어려운 금융여건 속에서 조합원 및 지역주민의 금융자산을 지키고 함께 잘 어울릴 수 있는 ‘복지 사회 실현’을 최종 경영 목표로 하고 있다. 9,500여 명의 조합원(2022년 말 기준)과 20명의 임직원으로 구성되었으며, 2년 연속 ‘지역사회공헌 인정기관’에 이름을 올린 새청주신용협동조합이 그 주인공.

매년 지역의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장학금 지원, 문화후생사업 및 조합원의 헌혈증기부를 독려하기 위해 적금상품에 우대금리를 지원하는 헌혈 적금상품 추진 등 많은 사회적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이력을 조합원과 지역사회에 환원하기 위해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펼치고 있는 남민우 이사장을 만나봤다.



청주시 율량동에 위치한 새청주신용협동조합 전경.

지역사회의 이익을 위한 ‘아낌없이 주는 착한금융’
 소외아동 정기 후원 ‘1신탁1아동결연사업’도 참여

회공헌활동이 아닌 장기적 활동 프로그램에 동참해 관심을 가지게 됐다.

Q. 사회공헌활동으로 주로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가?

A. 자체적으로 매년 지역의 중·고등학생 대상으로 장학금을 지원하고, 지역소상공인 물품 공동구매를 통해 조합원·지역주민이 상생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코로나19로 잠시 중단됐지만 임직원·조합원이 함께하는 사랑의 연탄 나눔, 해외 의료봉사 등의 사업도 운영했다. 또한, 임직원·조합원들의 지역사회에 대한 자발적인 기부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이외에도 신탁사회공헌재단과 지역소상공인이 협약해 홍보 및 소비 촉진에 지원하는 ‘소상공인 어바바블렌’, 지역소외계층에 필요물품을 지원하는 ‘온(溫)세상 나눔’ 프로그램 진행, 초록우산어린이재단과 함께 소외아동을 정기 후원하는 ‘1신탁1아동’ 결연사업에도 참여하고 있다.

Q. 지역사회공헌 인정기관에 선정된 배경을 꼽는다면?

A. 지역사회 주민과 조합원을 항상 대면하고 유대관계에 있는 직원들과 회의를 통해, 지역의 소외된 이웃 및 생활이 어려운 조합원을 발견하여 지원할 방안을 모색·마련하는 등 큰 노력의 결과라고 생각한다.

조합의 직원이 추진하는 사회공헌 사업 및 봉사활동에 대한 참여기회를 얻어 지자체·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으로 활동했다.

그 결과 지자체 담당자의 소통을 통해 조합의 일방적인 지원이 아닌 소외계층에게 꼭 필요한 물품을 전달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

또, 2016년부터 지역 아동을 대상으로 ‘협동경제 멘토링’ 사업을 통해 지역의 아동센터와 직원들과 유대관계를 꾸준히 이어가고 있다.

Q. 사회공헌활동으로 얻은 성과는 무엇인가?

A. 지자체·지역사회보장협의체 및

조합원과 소통을 통해 지역사회 전체의 어려움뿐만 아니라 주민 및 조합원 개인의 어려움을 알 수 있었다.

실질적으로 필요한 지원을 통해 소외계층에게는 만족도를, 직원에게는 보람을 느낄 수 있는 계기가 됐다.

또한, 직원들이 환경보호를 위한 상품개발 및 조합원·지역주민 개인의 어려운 사정에 관심을 기울여 신탁의 경영 목표를 이루기 위한 발걸음을 내딛었다고 생각한다.

Q. 지역사회공헌을 위해 가장 신경 쓰고 있는 부분은?

A. 조합원, 지역사회 유관기관, 지자체 및 임직원과의 소통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기관 담당자들과의 활발한 소통을 통해 대상자 선정 및 지원 방향 결정에 필요한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일방적인 기부 및 사회공헌활동은 장기적인 유지가 어렵고, 지역 특성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워 지역주민들을 위해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없다고 생각한다.

코로나19 이전에는 임직원·조합원이 참여하는 사회공헌활동 및 지역사회 축제를 통해 소통했으나, 현재는 활동이 저조해 다시 회복하는데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Q. 앞으로 지역사회공헌 계획은?

A. 기존에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지역주민을 위한 사회공헌활동과 더불어 ESG경영을 실천하기 위해 환경보호를 위한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는 제로웨이스트운동, 임직원·조합원과 함께하는 지역 환경정화활동 등 사소하지만 실천 가능한 활동을 계획하고 있다.

이밖에도 세계적 에너지 위기 극복을 위한 에너지 절약 운동에 동참하기 위해 절감된 에너지 판매, 그 대금을 사회에 환원하는 ‘에너지 솔루션제도’를 도입해 탄소중립과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하기를 기대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조합 문화센터를 활용하여 키오스크, 모바일 뱅킹,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환경보호에 관한 리사이클 프로그램 등 활동계획 중이며, 포용금융 활성화에 일환으로 금융상품을 이용하는 동시에 사회공헌에 참여하는 금융상품을 계획하고 있다.



장애인 정보통신보조기기.

충북도, 장애인 대상 정보통신 보조기기 보급

200명에 독서확대기, 특수 마우스 등 125종

충북도는 장애인의 정보통신기기 활용을 돕기 위해 보급 대상자 200명에게 정보통신 보조기기 구매비용을 지원하는 ‘장애인 정보통신 보조기기 보급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보급 대상은 충청북도에 주소를 둔 ‘장애인복지법’에 의해 등록된 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장애인으로 서류심사, 전문가 평가 등 공정한 심사를 통해 보급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지원내용은 구매 비용의 80%(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90%)를 지원한다.

보급 품목은 시각장애인을 위한 독서확대기, 점자정보단말기 등 66종, 지적·뇌병변 장애인을 위한 독서보조

기, 특수마우스 등 22종, 청각·언어장애인을 위한 영상전화기, 음성증폭기, 의사소통보조기기 등 37종으로 총 125종이다.

신청은 구비서류를 갖춰 6월 23일까지 거주지(주민등록지 기준) 관할 시·군 정보화부서에 방문 혹은 우편으로 하면 되며,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정보통신보조기기 홈페이지(http://www.at4u.or.kr)에서도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정보통신보조기기 상담전화(☎ 1588-2670)를 통해 상담받으면 된다.

충북도 관계자는 “앞으로도 장애인 등 도내 정보취약계층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많은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의료비후불제 200명 돌파, 취약계층 의료 부담 해소

수혜자·의료기관 모니터링... 신청자격 확대 등 지속 개선

충북도가 올해 1월 9일부터 시행한 의료비후불제 이용자가 200명을 돌파했다.

지난 9일 도에 따르면 이날 기준 의료비후불제 이용자는 65세 이상이 93명으로 가장 많았다.

기초생활수급자 86명, 장애인 10명, 국가유공자 8명, 차상위계층 3명이다.

질환별로는 임플란트 164건, 척추수술 16건, 슬관절 인공관절 9건, 심혈관 수술 5건, 고관절 인공관절 3건, 뇌혈관 수술 3건이다.

임플란트 치료에 집중된 것은 긴급복지 지원사업, 공동모금회 긴급의료비 지원 등 다른 의료복지제도의 수혜를 받지 못하는 치료이기 때문에 신청자가 많았던 것으로 분석된다.

청주에 거주하는 A씨는 남편이 갑작스러운 호흡 곤란이 발생해 병원을 찾았고 남편이 대동맥판막협착이라는 판정을 받았다. 목돈이 없었던 A씨는 다른

복지지원제도를 알아봤지만, 수혜 대상자가 아니어서 난감해하던 중 의료기관 안내로 의료비후불제를 신청해 수술 받을 수 있게 됐다.

도는 의료비후불제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수혜자 및 참여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해 사업만족도, 불편사항 등을 개선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수혜자 및 의료기관의 상담내역을 바탕으로 다년도 질환인 골절, 암, 폐렴 등 대상질환 확대와 함께 의료비후불제가 필요한 취약계층을 선제적으로 발굴해 도민의 의료비 부담 해소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의료비후불제는 목돈 지출의 부담감으로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하는 보건 의료 취약계층에게 의료비를 대납하고, 환자는 무이자로 장기 분할상환해 다른 어려운 환자들에게 도움을 주는 전국 최초의 선순환적 의료복지 제도다.



새청주신용협동조합 직원들.



지난해 신탁사회공헌재단과 함께한 온세상 나눔 캠페인.

도서출판 유한사

28505 청주시 청원구 대성로 285 (우암동 224-6)
 285, Daeseong-ro, Cheongwon-gu, Cheongju-si, Chungcheongbuk-do, Korea
 TEL:(043)255-0504, 253-0504 FAX:(043)222-0504
 H.P: 010-9566-0504 E-mail: youhansa@daum.net

각종 교육 교재
 책자제본·스프링제본
 칼라복사·칼라출력
 대형코팅·현수막출력
 대형출력·도면복사

무인 프린트샵 프린트카페
 청주대정문점
 24시 무인복사기
 복사 출력 스캔 팩스
 가입문의 1522-5044

청주시, 퇴원 후 저소득 어르신 돌봄서비스 제공

올해 50명 대상 시범사업, 퇴원수속·의료비 등 지원

청주시는 병원치료를 받은 뒤 퇴원한 저소득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맞춤형 통합돌봄서비스를 제공한다.

서비스 대상은 입원 치료 후 가정으로 복귀해도 돌봄을 받을 수 없는 독거노인, 고령 노인부부, 어린 손자녀나 장애가족과 동거하는 어르신 등이다.

돌봄서비스는 동행지원(병원,

행정대행), 주거편의(대내청소, 세탁, 소독방역), 식사지원(식사, 밑반찬, 유동식지원), 긴급지원(의료비, 주거환경개선비, 일상생활지원비) 등 퇴원 어르신에게 필요한 돌봄서비스를 지정 수행기관을 통해 맞춤형 서비스로 제공한다.

우선 올해는 청주의료원, 한국병원, 하나병원, 효성병원 등 4곳에서 입원 후 퇴원하는 어르신 중

돌봄이 필요한 경우 병원에서 1차 조사 후, 청주시독거노인통합지원센터(센터장 이우중)로 연계해 가정으로 복귀 후 통합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5월 현재까지 5명의 어르신에게 돌봄서비스를 제공했으며 퇴원을 앞둔 3명의 어르신이 대기 중에 있다.

하반기부터는 충북대학병원과 성모병원까지 범위를 확대한다.

퇴원 후 돌봄서비스를 희망하는 어르신이나, 주변에 퇴원 후 돌봄서비스가 필요한 어르신이

있는 경우 청주시 노인복지과(☎043-201-1865), 청주시독거노인통합지원센터(☎043-287-1441) 또는 입원 병원 사회복지사업부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퇴원 후 가정으로 복귀하는 어르신들이 좀 더 건강하고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다양한 노인복지 시책을 발굴하겠다"며 "청주만의 특화된 노인통합돌봄서비스로 어르신들이 행복한 청주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충주시, 장년층 1인가구 건강·안전관리 사업 실시

고위험군 50가구, 중·저위험군 50가구 대상

충주시와 충주종합사회복지관(관장 이광훈)은 인공지능 사물인터넷(IOT)기기와 상담봉사자를 활용한 장년층(50세~64세) 1인가구 건강안전관리 사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IOT기기를 인공지능과 인터넷을 활용한 정보통신 기기로서 가정에서 대상자의 움직임과, 조도, 온도 등을 감지해 건강 안전 상태

를 모니터링 하고 위험상황을 판단하는 등 복지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다.

시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충주종합사회복지관과 연계해 장년층 100가구 중 고위험군 50가구에는 IOT기기를 우선 설치해 안전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중·저위험군 50가구를 대상으로 상담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고위험군부터 시작된 설치가 고독사 예방에 크게 기여할 예정이다.

또한 중·저위험군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상담사업도 추진해 오는 7월부터 대상자에게 상담 및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조길형 충주시장은 "충주종합사회복지관과 함께 장년층 고독사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시민이 행복하고 발전하는 충주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인공지능 사물인터넷(IOT)기기.

한편, 시는 위기가구나 홀로 있어 위험해 보이는 장년층 발견 시 카카오톡(충주톡-복지위기가구 신고/충주종합사회복지관 1:1 채팅)이나 복지부 콜센터(☎129),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연락해 줄 것을 당부했다.



단양군 지역 청년들의 창업을 지원해 운영 중인 업체 모습.

단양군, 인구소멸 대응 청년 희망 '땀 올려'

지방소멸대응 중소기업 혁신 공모사업 선정

단양군이 인구소멸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청년 희망의 땀을 올렸다.

군은 중소벤처기업부·행정안전부 공동 주관 '지방소멸대응 지역 중소기업 혁신 공모사업'에 청년희망센터(단청마루) 연계 청년창업 지원사업이 선정됐다.

이번 공모는 지난달 14일까지 전국 89개 인구감소지역과 18개 관심 지역을 대상으로 했고 행정안전부 지방소멸대응기

금 투자사업과 중소벤처기업부 기업 지원사업과 연계해 진행했다.

또한 지방소멸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지역 일자리 창출로 인구 유입 효과를 높여 진정한 지방시대를 구현하기 위해 올해 처음 추진돼 의미를 더했다.

처음 진행된 이번 공모에 28개 지자체(협업 지자체 포함)가 23개 과제를 신청해 1차 서면 평가와 2차 대면 평가를 통해 최종 선

정된 16개 지자체(13개 과제)는 행안부의 기금 평가 시 가점 2점을 부여받고 중기부 정책사업에서 우대지원을 받을 예정이다.

이번 계획한 사업은 2024년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확보한 10

충북사회복지신문

발행인 김 영 석 사회복지 출판·홍보위원장 박 상 준 (28583) 충북 청주시 흥덕구 공단로 87 충북종합사회복지센터 3층 전화 : 043-234-0840 FAX : 043-234-0849 E-mail : cbbokji043@naver.com 홈페이지 : www.043w.or.kr

제천시, 치매노인 실종예방 '스마트지킴+NFC 보급'

보호자 스마트폰과 연동해 실시간 위치 확인 가능



제천경찰서가 실종 우려 치매 노인 보호자를 대상으로 스마트지킴이 사전 설명회를 진행했다.

제천경찰서가 지난 8일 실종 우려 치매 노인 보호자를 대상으로 스마트지킴이 사전 설명회 갖고 무료 보급했다.

이번 스마트지킴이 사업에서

는 기존 배회감지기에 새로운 기능을 보강해 위치추적기를 인솔로 스마트지킴이 사전 설명회 갖고 무료 보급했다.

NFC(근거리 무선데이터 통신 기

능) 태그를 신발 끈에 장착했다.

위치추적기는 보호자의 스마트폰과 연동해 실시간 위치 확인이 가능하고 일정 범위를 벗어나면 문자 발송, 배회하는 치매 환자 발견 시 NFC 태그를 통해 신상정보를 파악해 신속히 가족에게 연계할 수 있다.

이를 통해 가족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경찰은 수색 발견과 가족 연계 시간을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송해영 서장은 "1차 사업으로 관내 실종 우려가 큰 치매 환자 20명을 선정해 보급했다"며 "앞으로 관련기관과 협력을 통해 확대 보급할 계획으로 사회적약자에 대한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음성군, 아동친화 환경조성 '보건복지부 장관상'

101회 어린이날 맞아 우수 지자체 표창

음성군이 2023년 제101회 어린이날을 맞아 아동친화 환경조성 부문 우수 지자체로 선정돼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번 포상은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받은 지자체 가운데 아동 인권·안전·권리·복지 증진에 기여한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우수 지자체를 선정한다.

군은 2018년 아동친화도시 인

증을 받아 4년간 아동친화정책을 착실히 이행해 지난해 11월 충북도내 군단위 최초로 아동친화도시 상위단계 인증을 받았다.

군은 아동이 행복한 도시, 희망이 꽃피는 음성이라는 슬로건 아래 아동참여위원회, 청소년참여위원회 등을 운영하고, 아동권리교육과 홍보, 정책 제안 등 아동의 정책 참여와 권리 보호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아동 권리 보장을 위해 오감만족 새싹체험장, 물놀이장, 어린이 도서관 등을 운영하고, 찾아 가는 아동 권리 교육, 아동 폭력, 아동학대 근절을 위한 캠페인 등을 통해 아동 권리 인식 개선에도 꾸준히 노력해 왔다.

조병옥 군수는 "아동과 부모와 소통하며 모두가 체감하고 공감할 수 있는 다양한 아동친화정책을 추진하겠다"며 "아동이 행복하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친화적 환경 조성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진천군, 우리동네 거점돌봄센터 사업 본격 추진

군내 34개 거점돌봄센터서 의료·돌봄 프로그램 운영



진천군은 생겨진천형 통합돌봄 사업으로 거점돌봄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진천군이 생겨진천형 통합돌봄 사업의 일환으로 우리동네 거점돌봄센터 사업을 본격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우리동네 거점돌봄센터는 마을 내 거동 가능한 노인 대부분

이 이용하는 경로당의 강점을 활용해 의료·돌봄 프로그램을 지원하려는 사업이다.

지난 2019년부터 지역 어르신들이 살던 곳에서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추진해 온 해당

사업은 마을 단위 주간보호센터 기능과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지난해 26개소였던 거점돌봄센터는 희망 마을 증가로 현재 34개소로 확대됐다.

올해 본격적인 운영에 앞서 지난달 28일 생겨진천종합사회복지관에서 '거점돌봄센터 동네복지사 역량강화교육'을 마쳤다.

앞으로 찾아가는 한방진료, 맞춤형 운동지도, 원예프로그램 등 알찬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 어르신들의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특히 거점돌봄센터는 마을 실정을 잘 알고 사명감과 봉사정신이 투철한 지역 주민을 동네복지사로 선발·교육하고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있어 주민 참여형 복지 실천 문화 정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맛있는 나눔 사랑의 실천" 푸드뱅크가 함께합니다. 모두와 손잡고 나눔의 세상을 만듭니다.

식품별 모집 가능기한

구분	기부 식품군	모집 가능기한	
가공 식품	제과류	스낵, 사탕, 껌, 초콜릿 등	
	즉석식품	면류(리면, 소면, 스파게티 등), 즉석밥, 죽 등	최소 30일 이전
	냉동식품	아이스크림, 케익, 비닐포장, 스테이크 등	
	통조림	참치, 장조림, 과일통조림 등	
정류 및 식용류	정류	된장, 고추장, 간장, 소금 등	
	소스류	드레싱, 고기양념류 등	최소 30일 이전
	기름류	식용유, 참기름 등	
음료류	주스, 탄산음료, 멸균우유, 건강음료(홍삼) 등	최소 30일 이전	
	육가공류	햄, 햄, 소시지, 베이컨 등	최소 7일 이전
신선 식품	농산물	두부, 순두부, 콩나물, 호박, 파, 김치류 등	
제빵류	각종 슈퍼마켓, 제과점 빵류	최소 3일 이전 (제과점은 판매일)	

생활용품별 모집 가능기한

구분	종류	모집 가능기한
세제류	세면용 세제, 샴푸, 린스	최소 90일 이전
	세탁용 세제, 주방용 세제, 욕실용 세제	최소 60일 이전
휴지류	화장지	최소 60일 이전
	물휴지	최소 90일 이전
수건류	수건, 종이 수건, 손수건, 행주	최소 60일 이전
	기저귀류	유아용 기저귀, 성인용 기저귀
신체 위생용품류	치약, 칫솔, 구강세정제	최소 90일 이전
	머리비, 면도용품, 손톱깎이	최소 60일 이전
여성 위생용품류	생리대	최소 60일 이전
	청소·환경 위생용품류	고무장갑, 걸레, 빗자루, 쓰레받기, 쓰레기통, 수세미
	가정용 살충제	최소 90일 이전

기부혜택
기업 및 개인이 푸드뱅크·마켓에 식품·생활용품 무상으로 기부할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와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에 의해 100%~10% 범위 내에서 세제혜택을 받습니다.

충북광역기부식품지원센터 (충북광역푸드뱅크)

기부방번호
043) 234-1377
광역 대량 기부

전국 어디서나
1688-1377
지역 소량 기부

보은군, 올해 노인복지예산 523억원 투입

예산 60억 증액... 경로당 입식 식탁·AI케어서비스 등 지원



보은군 어르신들이 노인복지대학에서 진행한 건강 프로그램에 참여해 즐거워하고 있다.

보은군은 복지예산의 55%인 523억원을 노인들을 위해 집중 투자하는 다양한 노인복지정책을 추진한다고 지난 11일 밝혔다.

올해 신규사업으로 군내 289개소 모든 경로당에 무릎관절 손상 방지를 위한 입식 식탁 지원, 독거노인 증가와 고독사 예방을 위해 AI기반 실버케어서비스 지원, 뇌경색·뇌출혈에 따른 조기 진단과 치료가 이어질 수 있도록 신경과 신설, 2개월에 1회 이상 경로당을 방문해 건강 상담과 운동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경로당 주치의 방문 의료서비스 등을 추진하고 있다.

대폰을 이용한 여가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건강 데이터를 측정하는 사업을 추진 중이다. 아울러 47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노인 1,600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무료급식소 3곳에 4,000만원을 추가 지원했으며, 거동이 불편한 저소득 노인에게 말반찬 배달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이 밖에도 저소득 노인들의 기초연금(350억원), 노인맞춤돌봄서비스(18억 3000만원), 경로당 289개소에 운영·난방(냉방)비 및 양곡비 지원(17억 8000만원), 2023 노인복지대학 운영(2억 8000만원) 등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군에 따르면 만 65세이상 인구(4월 30일 기준)가 1만1965명으로 전체 인구의 38.1%인 초고령 사회로 지난해보다 예산을 60억원(8.8%) 증액해 다양한 노인 복

증평군, 행복돌봄 위한 시간제보육 운영

생후 6개월~36개월 미만 영아 대상

증평군은 행복돌봄을 위한 다양한 노력의 일환으로 오는 6월부터 시간제보육을 운영할 예정이다. 시간제보육이란 생후 6개월에서 36개월 미만의 영아들을 대상으로 지정된 제공기관에서 시간 단위로 이용하고 이용하는 시간만

큼 보육료를 지불하는 서비스로 시간당 자부담 천원의 보육료로 월 80시간까지 이용할 수 있다. 2023년 5월 시간제보육 제공기관 공개모집을 거쳐 접수된 3개 보육시설에 대해 1차 서류심사 및 현장확인을 통한 2차 심사

결과 1개소(엔젤어린이집)가 시간제보육 제공기관으로 선정돼 6월부터 아이들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다. 시간제보육반에는 별도 전담 교사가 배치돼 독립된 보육실에서 교사 1인당 3명까지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서비스를 희망하는 부모님은 임신육아종합포털 아 이사랑 PC버전이나 모바일앱에

서 회원가입 후 예약이 가능하며 자세한 안내는 ☎1661-9361로 문의하면 된다. 이재영 증평군수는 "시간제보육은 부모의 병원 이용, 외출, 단 시간 근로 등의 사유로 어린이집 이용이 필요한 경우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돌봄서비스로 앞으로 확대, 발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증평군, 임산부 1인당 24만원 상당 '친환경 농산물' 지원

건강한 임신·출산 환경 마련, 출산 장려 기여

증평군은 지역 내 임산부 1인당 24만원 상당의 친환경 농산물을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한다. 지원대상은 지난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산모나 현재 임신 중인 임산부 등 모두 50여 명이 다.

이들에게는 도내에서 생산된 제철과일, 채소류, 축산물, 농·수산물, 유제품 등이 제공된다. 신청은 오는 6월 1일부터 9일 까지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소평몰인 '에코이몰'(www.ecoemall.com)에서 온라인으로 하거나 임

산부 본인이 신분증과 임신(또는 출산) 확인서류를 갖고 읍·면사무소에서 방문하면 된다. 지원금으로 오는 12월 15일까지 '에코이몰'에서 원하는 품목을 선택해 주문하면 된다.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은 2019년 충북도가 전국 최초로 시작한 뒤 2020~2022년 국민참여예산제도로 농림축산식

품부 시범사업으로 추진됐고 올해는 충북도 자체사업으로 추진한다. 군 관계자는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을 통해 건강한 임신·출산 환경을 마련해 출산 장려에 기여하기를 바란다"며 "신청된 임산부가 적극적인 구매를 할 수 있도록 홍보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옥천군, '장애인 가족 역량강화 사업' 프로그램 진행

장애인 가족들의 정서적 어려움·스트레스 해소

옥천군장애인가족지원센터(센터장 신봉기)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 지난 20일 옥천상계체육 시설 게이트볼장에서 옥천군 장애인 가족 및 지역사회 관계자와 함께 '옥장가 페스티벌 즐기자 Go!' 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옥천군에서 지원한 장애인 가족 역량강화 사업의 일환으로 발달장애인 인형극단 옥장가의 웬젤과 그레텔 성폭력

예방 인형극 공연을 시작으로 미니 올림픽, 아나바다 나눔장터 운영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특히 발달장애인 인형극단 옥장가의 인형극 공연은 작년에 이어 올해 3월 발달장애인 6명과 센터 직원 3명으로 구성된 2기 팀을 새롭게 꾸려 주 2회 2시간씩 꾸준히 훈련한 결과, 이날 행사를 통해 옥장가가 2기 첫 공연의 화려한 출



옥천군장애인가족지원센터는 지난 20일 장애인 가족 역량강화 사업으로 '옥장가 페스티벌 즐기자 Go!' 행사를 개최했다.

발을 응원하는 시간을 갖게 됐다. 신봉기 센터장은 "옥장가 페스티벌 즐기자 Go! 행사를 통해 옥천군에 거주하는 장애인 가족들

의 정서적 어려움과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소소한 행복을 통해 가족역량이 강화되는 계기가 됐길 바란다"고 말했다.

괴산군, 2023년 '희망동행 봄봄사업' 시작

가족같은 이웃사촌 괴산군 '희망동행 봄봄' 동행봉사자



괴산군이 지난해 시범사업으로 진행했던 '희망동행 봄봄사업' 운영 모습.

괴산군은 대중교통이 취약한 저소득 주민들의 병원 진료를 돕는 2023년 '희망동행 봄봄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고 밝혔다.

동행봉사자가 병원동행 전 과정을 돕는 '희망동행 봄봄사업'은 지난해 시범사업 운영을 거쳐 올해 47가구를 대상으로 새롭게 추진하고 있다. 11개 읍·면에 18명의 동행봉사자들은 멀리 살고 있는 보호자를 대신해 병원을 동행해 접수·수납·진

료·약처방 등과 귀가를 챙겨주며 든든한 보호자가 되고 있다. 청천면에 홀로 살고 계신 김씨의 며느리 윤 씨는 "몸이 불편한 어머니가 혼자 병원에 가시고 자식들도 먼 곳에서 직장생활해서 자주 오기가 어려운 데 괴산군에서 교통편과 동행 봉사자를 연결하는 이런 사업을 진행해주셔서 너무 감사한 마음입니다"라며 "연세가 있으셔서 병원 갈 일이 잦아 여러 번 연차를 내 회사에 눈치가 보이는데

고민을 털어줘서 감사하다"고 전했다. 청천면에서는 마을간 이동거리가 가장 긴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제일 많은 봉사자가 활동하며 인근 마을에 병원동행이 필요한 분들이 봉사자들의 동행으로 따뜻한 이웃사랑의 좋은 본보기가 되고 있다. 특히, 청천면 유동상 봉사자는 병원에 입퇴원을 개인적으로 도와주며 퇴원 후에도 일상생활이 어려운 어르신을 매일 들여다보며 수시로 식사 등을 챙겨주는 등 많은 감동을 주고 있다. 청천면 김향선 봉사자는 4명 대상 봉사를 시작으로 여기저기 어르신들의 요청으로 7명까지 동행봉사를 하고 있으며, 문광면 이은희 봉사자는 건넌마을을 오가며 봉사를, 칠성면 김은숙 봉사자는 여전히 타지역(수도권)까지 병원동행 봉사를 하고 있다. 불정면 박옥선, 조연화, 장금옥 봉사자 또한 올해에도 읍·면사무소에 방문해 선풍 봉사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

영동군, '배회가능 어르신 인식표' 보급사업 추진

실종방지·실종시 조기발견... 사회적 안전망 구축

영동군은 실종 경험이 있거나 실종 발생 위험이 있는 치매환자와 인지저하자들을 대상으로 배회가능 어르신 인식표를 보급한다고 지난 16일 밝혔다.

배회가능 어르신 인식표는 의복에 다리미 등으로 열을 가해 부착하는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일반 시민이 배회하고 있는 치매환자를 발견했을 경우 고유번호가 부여된 인식표 부착여부를 확인한 뒤 경찰청(☎112)에 즉시 제보하면 된다.

2022년 중앙치매센터 제공 자료에 따르면 영동군의 60세 이상 치매유병률은 9.19%, 추정 치매환자 수 1921명이며 65세 이상 치매유병률은 12.17%, 추정 치매환자수는 1,887명으로 산출됐다. 영동군의 65세 이상 치매유병률은 전국 10.3%, 충청북도 11% 보다 1% 이상 높은 수치로 치매환자의 실종에 따른 예방도 중요하게 다뤄져야 한다. 이에 군은 치매환자 등 인지저자자의 실종 방지와 실종 때 신속한 조기 발견, 사회적 안전망 구축을 위해 인

식표 보급사업을 추진 중이다. 지난해에는 50여명이 이 인식표를 발급받았다. 배회가능 어르신 인식표는 의복에 다리미 등으로 열을 가해 부착하는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일반 시민이 배회하고 있는 치매환자를 발견했을 경우 고유번호가 부여된 인식표 부착여부를 확인한 뒤 경찰청(☎112)에 즉시 제보하면 된다. 경찰관은 인식표 고유번호를 통해 치매환자의 정보를 확인한 뒤 신속하게 가족에게 인계 해주고 집으로 복귀하도록 지원해준다. 배회가능 어르신 인식표는 1박스(80매)가 보급되며 보호자용 실종대응카드 1개로 구성돼 있다. 발급 대상은 실종 위험이 있는 치



배회가능 어르신 인식표.

매환자와 인지저자자 치매안심센터에 직접 방문해 신청이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실종노인의 발생을 예방하고 실종 때 조속한 발견과 복구 지원을 통해 치매환자들의 안전한 환경 조성이 중요하다"며 "인식표 발급에 군민들의 많은 관심과 신청을 바란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영동군보건소 치매안심센터(☎043-740-5946~5949)로 문의하면 된다.

영동군, 재가장애인 가정방문 중점 실시

보건 의료 접근성 향상, 삶의 질 저하 예방·개선

영동군은 재가장애인의 건강상태 파악과 등록 관리를 위해 재가장애인 가정방문서비스를 실시중이라고 지난 18일 밝혔다.

이번 가정방문서비스는 영동군에 거주하고 지체·뇌병변 유형의 장애 정도가 심한 가정방문 희망자 90명을 대상으로 한다.

현재 영동군보건소 재활센터에 등록된 장애인 수는 360여 명으로 이중 거동이 가능한 뇌병변·지체장애를 가진 장애인 40여 명이 매일 내소해 운동·물리치료, 분기별 자조모임에

참여하고 있다. 물리치료사가 가정으로 방문해 신체기능평가, 자가 재활운동법 교육, 재활기트 지급, 의료기기 대여 홍보 등 지역장애인의 건강상태 개선과 건

강관리 능력 향상을 위한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을 한다. 또 일상생활에서 운동할 수 있도록 자체 제작한 뇌졸중 장애인의 건강생활 가이드북을 배부해 2차 장애 예방과 관점구축을 방지하고 있으며 알찬 프로그램 구성과 체계적인 운영으로 대상자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황희성 영동군보건소장은 "이 서비스를 통해 거동불편 재가장애인의 보건 의료 접근성을 높이고 삶의 질 저하를 예방·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충북사회복지신문

광고 게재 안내

지면	크 기	배색	금액(원)
1면	4단 (360mm×138mm)	컬러	300,000
	제호 옆 돌출 (67mm×33mm) (3개월)	컬러	100,000
2면~7면	4단 (360mm×138mm)	흑백	200,000
8면	4단 (360mm×138mm)	컬러	250,000

계재 개월 및 기타 상황에 따라 협의 조정 가능

문의 충북사회복지협의회 김세나 사회복지사 (T.043-234-0840~2)

충북도, 올 4월까지 출생등록 증가율 전국 1위

전국적인 감소추세 속 충북 출생신고 등록건수 반등

전국적으로 지속되는 저출생 위기 속에도 충북 만큼은 올해 출생아수 반등이 기대된다. 행정안전부 주민등록통계에 따르면 올해 1~4월 충북의 출생신고 등록건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여 0.6%(16건) 증가한 2,655건으로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대비 1~4월 전국 평균 출생신고 등록건수는 6.3% 감소했으며, 17개 시도 중 15개 시도가 감소하고 충북(0.6% 증가)과 전남(0.4% 증가)만 증가했다. 도내 시군은 청주, 충주, 제천, 증평이 증가하고 나머지 시군은 감소했다. 충북도 관계자는 "지난해 전국에서 가장 높은 혼인건수 증가율(5.2%)과 32~36세 연령별 여성 인구가(8,105명) 대비 25~31세 여성 인구의 일시적 증가(8,675명) 등의 원인으로 출생신고 등록건수가 반등한 것으로 보인다"며

"올해부터 지원하는 출산육아수당과 임신·출산·돌봄 친화사업 확대를 급년 충북의 합계출산율 반등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충북도는 인구위기 극복을 도정의 최우선 과제로 정하고 지난 1월 전담부서인 인구정책담당관을 신설하였으며, 도지사가 주관하는 인구위기대응TF 회의를 통해 지난달 민선8기 인구정책 추진전략을 수립·발표한 바 있다.

추진전략에는 출산육아수당 1,000만원 지원, 임신·출산·돌봄 플랫폼 구축과 임신부의 대중교통 무료이용, 공공시설 이용요금 감면 등의 내용을 담은 '임산부 예우 및 지원 조례' 제정 추진 등 임신·출산 친화사업은 물론, 초보부모 육아코칭, 의료비후불제 임신부 확대 적용, 어린이집 야간 연장 운영, 365일 긴급 보육서비스 지원, 남성 육아휴직 기업 지원 등 돌봄을 강화하는 사업도 포

□ 시도별 현황

구분	23.1~4월					전년 동기대비			
	계	1월	2월	3월	4월	1~4월	증감	증감률	순위
전국	82,569	21,960	20,411	21,911	18,287	88,158	△5,589	△6.3	
서울	14,074	3,765	3,486	3,753	3,070	15,104	△1,030	△6.8	9
부산	4,628	1,213	1,154	1,244	1,017	4,970	△342	△6.9	10
대구	3,310	878	795	938	699	3,584	△274	△7.6	13
인천	4,887	1,309	1,244	1,278	1,056	5,034	△147	△2.9	5
대전	2,274	592	589	603	490	2,615	△341	△13.0	17
대전	2,566	657	658	656	595	2,604	△38	△1.5	4
울산	1,852	497	428	495	432	1,972	△120	△6.1	8
세종	1,068	279	285	276	228	1,196	△128	△10.7	16
경기	24,847	6,639	6,118	6,512	5,578	26,855	△2,008	△7.5	11
강원	2,463	644	624	642	553	2,497	△34	△1.4	3
충북	2,655	668	633	703	651	2,639	16	0.6	1
충남	3,296	892	795	890	719	3,595	△299	△8.3	14
전북	2,353	655	568	604	526	2,467	△114	△4.6	6
전남	2,769	730	678	749	612	2,759	10	0.4	2
경북	3,762	1,001	963	977	821	4,005	△243	△6.1	7
경남	4,618	1,217	1,112	1,283	1,006	4,992	△374	△7.5	12
제주	1,147	324	281	308	234	1,270	△123	△9.7	15

시도별 출생신고 등록현황(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

함했다. 이 밖에 행정기관 중심의 인구정책 추진체계를 확대해 도와 시군, 공공기관, 민간사회단체, 학교, 기업체 등이 모두 참여하는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충북 만들기' 범도민 협의회 구성도 준비하고 있다.

장기봉 충북도 인구정책담당관은 "충북이 임신·출산·돌봄에 있어 전국에서 가장 친화적인 도가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다양한 지원사업을 발굴,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112·119 신고, '긴급신고 바로앱' 하나로 통합제공

긴급한 상황이라면 언제든, 기능 지속 개선 예정

앞으로 국민 누구나 앱 하나만 설치하면 위급한 상황에서 어느 긴급기관으로든 더욱 편리하고 신속하게 신고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112·119 신고 기능을 모바일 앱 하나로 통합한 '긴급신고 바로앱'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긴급신고 바로앱'은 경찰, 소방, 해경 어느 기관으로든 빠르게 신고가 가능하며, 말하기 곤란한 상황에서도 그림과 문자로 간편

하게 신고할 수 있다. 그동안 신고 앱은 경찰과 소방 등 긴급기관별로 운영해왔다. 그러나 앞으로 '긴급신고 바로앱' 하나만 설치하면 범죄, 화재, 구조·구급, 해양사고 등 신고유형에 따라 경찰, 소방, 해경 어느 기관으로든 한 번에 신고할 수 있다. 또한 전화 신고가 곤란한 상황에서도 그림이나 문자를 선택해 신속하게 신고할 수 있고, 청각장애인이거나 위협받는 상황 등에서

도 '음성통화 불가' 항목을 선택해 신고하면 접수기관이 상황에 맞춰 적절히 대응할 수 있다. 특히 한국어 구사에 어려움이 있는 다문화 가족이나 외국인 언어 장벽 없이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필리핀어 등 다국어 신고기능도 제공한다. 이에 시범운영 기간에 제안된 '음성통화 불가' 선택 기능 추가와 화면구성 및 신고그림·문구 변경 등 사용자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앱 사용 편의성을 개선했다. '긴급신고 바로앱'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안드로이드폰은 '월스



'긴급신고 바로앱 카드뉴스' 자료 행정안전부

토어' 및 '플레이스토어'에서, 아이폰은 '앱스토어'에서 내려받아 설치하면 된다. 이번 '긴급신고 바로앱'과 함께 기존 112 또는 119 개별 신고앱도 당분간 계속 이용할 수 있다.

올해 에너지바우처 5월 31일부터 발급 신청

발급 대상 확대·하절기 지원단가 인상 등

산업통상자원부는 5월 31일부터 12월 29일까지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및 온라인 홈페이지(www.bokjiro.go.kr)에서 '23년도 에너지바우처 사업'의 신청·접수를 시작한다. 에너지바우처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필수 에너지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 고지서의 이용금액을 차감

하거나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아 에너지비용을 결제할 수 있다. 올해에는 전기·가스요금이 인상되고, 하절기 폭염이 예상됨에 따라 발급 대상을 확대하고 하절기 지원금액도 인상했다. 먼저, '22년 한시적으로 지원대상에 포함됐던 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 중 추위·더위 민감계층(27.8만 가구)을 '23년 이후에도 계속 지원하

기로 했으며, 올해 세대당 연평균 지원금액은 19.5만원(하절기 4.3만원, 동절기 15.2만원)이다. 하절기 지원의 경우 작년에 지원단가를 0.9~4만원으로 현실화한 이후 올해에는 4.3만원으로 인상했다. 동절기 바우처 금액 중 4.5만원까지 하절기에 당겨쓰기가 가능하며, 하절기 지원금액 중 잔액은 별도 신청 없이 동절기로 자동 이월된다. 아울러, 보건복지부와 함께 에너지바우처 신청절차를 개선하여 기

초생활보장급여 신청인이 급여 수급을 신청한 날에 에너지바우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에는 기초생활보장급여 수급자격이 결정(신청 후 1~2개월 소요)된 이후 에너지바우처를 신청할 수 있었으나, 5월 31일부터는 같은 날에 신청이 가능해져 개별 신청에 따른 불편과 에너지바우처 신청 누락에 따른 복지 사각지대 해소가 기대된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에너지바우처 콜센터(☎1600-3190)에 문의하거나 에너지바우처 홈페이지(www.energyv.or.kr)에 방문하면 확인이 가능하다.

한부모가족 자녀도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받는다

여가부, 다음 달부터 지원... 실질적 보호 강화

여성가족부는 다음 달부터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있는 '한부모가족의 자녀(만 18세 미만)'도 사회·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 청소년복지지원법의 위기청소년 특별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지난 18일 밝혔다. 위기청소년 특별지원은 만 9~24세 이하 위기청소년에게 생활지원, 치료비, 심리검사, 상담비, 학업지원비 등 현금·물품으로 지원해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고자 실시되고 있다. 별도 심의를 거쳐 특별지원 대상으로 결정된 청소년은 생활지원, 학업지원, 건강지원 등 필요

한 사회·경제적 지원 서비스를 받아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자립기반을 마련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청소년 보호 현장에서는 보호자의 실질적 보호를 받지 못해 생활, 학업 등이 위태로운 청소년을 발굴해도 아동양육비를 지급받는 한부모가족 자녀인 경우 중복지원 금지로 별도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있었다. 이에 여가부는 사회보장기본법 상 사회보장제도 변경을 위해 보건복지부와 협의해 특별지원 대상을 확대, 이를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적용해 위기청소년을 위한 실질적 보호를 강화해나간다.

특별지원 신청방법은 청소년 본인, 보호자,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을 알고 있는 청소년 상담사·사회복지사·교원 등이 주소지의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시·군·구는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위기에 따라 대상자, 기간, 지원유형을 결정한다. 여가부는 청소년복지지원법 시행령을 개정해 지난 2021년 9월부터 대상자 연령을 만 18세에서 재학 여부와 상관없이 24세까지로 확대했다. 올해부터는 더 많은 위기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해 선정 기준을 중위소득 65%에서 100%로 완화하는 것을 비롯해 은둔형 청소년도 지원한다.

장기요양기관에 CCTV 설치 의무... 침실은 동의 필요

CCTV 설치장소, 기준 및 절차 등 규정

보건복지부는 장기요양기관 내 폐쇄회로 CCTV 설치·관리 관련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이하 '시행규칙')이 5월 8일 공포(2023. 6. 22. 시행) 되었다고 밝혔다. 이번시행규칙은 오는 6월 22일부터 노인학대 방지 등 수급자의 안전을 위해 장기요양기관 내 CCTV 설치·관리의 의무화됨에 따라, 'CCTV 설치·관리 기준, 영상정보의 보관기준 및 보관 기간, 열람 주체의 열람시기·절차 및 방법 등' 세부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것이다. CCTV는 각 공동거실(복도 포함), 침실, 현관, 물리(작업)치료실, 프로그램실, 식당, 시설 자체 운영 엘리베이터에 1대 이상씩 설

치되, 사각지대의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설치되어야 한다. 다만, 침실은 수급자의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해 침실별로 수급자 또는 그 보호자 전원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만 촬영할 수 있다. 장기요양기관은 수급자 및 그 보호자에게 열람 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열람 장소를 정하여 서면으로 수급자 또는 그 보호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국가 및 지자체는 장기요양기관 내 CCTV 설치장소, 내부 관리계획 수립 여부, 영상정보 사용 실태 등에 대해 조사·점검을 실시하고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시행규칙이 개정·공포되면 신규기관은 6월 22일부터, 기존기관은 6개월 후인 12월 21일까지 CCTV를 설치해야 한다.

지 못하고 있었던 한부모가족이 부·모와 자녀에게 도움이 되는 정책을 인지하고, 더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실제로, 서민금융진흥원의 한부모가족 의료보험(저소득층 아동보험)에 자동 가입됨에도 가입 사실을 알지 못해 보험금 지원을 받지 못한 사례가 있었으나, 이번 절차 개선을 계기로 여성가족부와 서민금융진흥원의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해당 제도에 대한 한부모가족의 인지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분야별 한부모가족 서비스 모바일 직접 안내

정보 접근성 향상 목적 개인정보 활용 절차 개선

여성가족부는 저소득 한부모가족에게 전자책(e-Book) 형태로 제작된 '2023년 한부모가족 복지서비스 종합안내서'를 직접 발송하여 한부모가족이 지원받을 수 있는 정부 정책에 대한 안내를 강화한다. 여성가족부는 임신·출산, 양육·돌봄 등 17개 기관에서 제공하는 58개 한부모가족 복지 지원서비스를 한 데 모은 '2023년 한부모가족 복지서비

스 종합안내서'를 발간하고 한부모가족 당사자가 직접 찾아볼 수 있도록 여성가족부 누리집 등에 게재하였으며,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 절차를 거쳐 한부모가족이 새로운 정책 정보를 더 쉽고 빠르게 알 수 있도록 한부모가족의 휴대전화로 직접 책자를 발송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같은 정책 안내를 통해 정책 지원 대상인에도 혜택을 받

지 못하고 있었던 한부모가족이 부·모와 자녀에게 도움이 되는 정책을 인지하고, 더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실제로, 서민금융진흥원의 한부모가족 의료보험(저소득층 아동보험)에 자동 가입됨에도 가입 사실을 알지 못해 보험금 지원을 받지 못한 사례가 있었으나, 이번 절차 개선을 계기로 여성가족부와 서민금융진흥원의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해당 제도에 대한 한부모가족의 인지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전문봉사단이 되어 나눔을 실천하세요! 지역사회봉사단!

지역사회봉사단이란?

사회복지 자원봉사 인증관리시스템(vms)에 등록된 다양한 재능과 특기를 갖춘 봉사자들이 모여 사회복지기관·시설·단체·소외계층에게 지속적으로 맞춤형 봉사활동을 하는 전문 자원봉사단

위촉기준

vms 가입 2인 이상으로
구성되고 연 4회 이상 활동
가능 단체

봉사단 혜택

- 활동재료비 일부 지원
- 자원봉사활동 시간(vms) 인정
- 관리 및 봉사활동 연계
- 다양한 문화공연 초청

SSN 충청북도사회복지협의회 복지사업과 박민정 코디네이터 전화) 043-234-0840

충북사회복지협의회 '사랑의 점심 나눔' 행사



충청북도사회복지협의회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지난 14일 청주 중앙공원에서 '2023 사랑의 점심 나누기 행사'를 진행했다.

코로나19로 3년만에 재개... 800명 어르신 대상 청주 중앙공원서 위문공연, 이·미용 봉사 진행

충청북도사회복지협의회(회장 김영석)는 충청북도사회복지협의회 연합봉사단(회장 심재훈, 이하 나우리회·스마일봉사단)과 나눔의 인연 봉우회가 합동으로 '2023년 가정의 달 기념 사랑의 점심 나누기'를 지난 14

일 청주 중앙공원에서 약 800여 명의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사랑의 점심 나누기'는 매년 지역 내 어르신들을 위한 나눔실천 행사로 무료급식 및 이·미용 봉사 등을 진행했었으나, 지난

2019년 코로나19로 인해 중단됐다가 3년만에 재개했다. 이날 행사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충청북도사회복지협의회 연합봉사단(나우리회, 스마일봉사단), 나눔의 인연 봉우회 등 자원봉사자 70여명이 참여해 어르신들께 따뜻한 한끼 식사 제공, 이·미용, 위문공연을 펼치는 등 코로나19로 인해 위축되고 활동이 제한되어 기다림에 지친 어르신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했다.

특히, 이번 행사에는 김영환 충북도지사와 김정일 충북도의원, 이화정 청주시의원이 방문해 어르신들을 위한 배식 봉사활동에 직접 참여하고, 자원봉사자들을 격려하는 등 사회복지자원봉사 활성화를 살폈다. 이번 행사를 주최한 김영석 회장은 "무료급식 행사는 본 협의회 소속 봉사단체인 연합봉사단과 소외된 이웃을 위해 매년 함께 지속적으로 이어온 뜻깊은 봉사활동"이라며, "나눔을 통해 소외된 어르신들이 조금이나마 따뜻한 하루를 보낼 수 있고, 나눔에 대한 의미를 깊이 생각하며 자원봉사활동의 홍보 효과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심재훈 회장은 "오랜만에 어르신들을 직접 뵈며 식사 뿐만 아니라 따뜻한 마음을 전할 수 있게 되어 매우 기쁘고 앞으로도 지역사회의 소외된 이웃들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도록 지속적인 나눔활동을 펼쳐나갈 것"이라고 각오를 밝혔다.

굿네이버스 충북지부, '좋은이웃' 현판 전달

가경교회, 국내·해외 빈곤아동에 후원금 전달



굿네이버스 충북지부는 가경교회에 '좋은이웃' 현판을 전달했다.

굿네이버스 충북지부(지부장 이영찬)는 가경교회(담임목사 박선용)와 함께 지난 10일 '좋은이

웃' 현판 전달식을 진행했다. 가경교회는 최근 나눔콘서트(선용)와 함께 지난 10일 '좋은이

들을 위한 1:1 결연(월 69만원)과 월 12만원의 국내아동지원, 월 5만원의 식수위생지원사업을 지원하기 시작했다. 이외에도 당일 예배헌금 약 55만원을 국내 및 해외 어려운 아이들을 위해 기부하였으며, 이에 따른 좋은이웃 현판을 전달하게 됐다. 굿네이버스 나눔콘서트는 나눔대사의 강연 및 노래를 통해 나눔에 대한 가치를 전달하고, 해외 소외된 아이들의 어려움을 알고 공감하기 위해 진행하고 있다. 나눔콘서트를 통해 1:1 해외아동 결연 및 국내아동지원, 식수위생지원사업 해외교육지원사

업, 보건의료지원사업 등에 동참할 수 있다. 박선용 담임목사는 "나눔콘서트를 통해 우리 성도들과 가치있는 일에 동참할 수 있게 되어 뜻 깊다"며, "성도들의 마음이 도움이 필요한 아이들에게 잘 전달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영찬 지부장은 "나눔콘서트를 통해 도움이 필요한 아이들의 이야기에 귀기울이고 마음 아파하며 따뜻한 나눔에 선뜻 동참해준 가경교회에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소외된 이웃들을 위한 나눔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굿네이버스 충북지부는 나눔인성교육, 세계시민교육 등 사회개발교육사업과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나눔 문화 확산에 앞장서고 있다.

청주시가족센터, 여성 양육자 모임 '가치의 같이'

소통 중심 공감대 형성·상호 간 친밀감 향상 기회

청주시가족센터(센터장 박미영)는 지난 12일 여성 한부모가정의 역량강화를 위하여 여성 한부모가장 5명을 대상으로 2023년 여성 양육자 모임 '가치의 같이' 3회기를 진행했다. 여성 양육자 모임은 2011년부터 2023년까지 가족희망드림지

원사업(가족맞춤형지원사업) 내 600명 이상의 여성 한부모가장이 참여하였으며, 모임원의 자립능력향상, 사회적 지지체계 확장, 양육 및 자기효능감 향상을 위해 운영되고 있다. '쉽과 취미, 나눔의 시간(업사 이클링 활동, 자녀 양육 고민 및

복지정보 나눔 등)'을 주제로 진행된 5월 모임은 양말목으로 친환경 바구니를 만들며, 나의 관심사에 대한 '소통'을 중심으로 자연스럽게 자기 개방할 수 있도록 운영되어 모임원 간 공감대를 형성하고, 상호 간의 친밀감을 향상하는 기회를 제공했다. 청주시가족센터의 사례관리사(가족맞춤형지원사업)에서는 등록 가족의 자립능력 향상, 사회

적 지지체계 확장, 가족 갈등 해소 등 가족의 욕구를 반영한 맞춤형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2023년에도 복합적이고 다양한 어려움에 직면한 사례관리 등록가족이 가족의 힘을 키우고, 자립할 수 있도록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박미영 센터장은 "청주시에 거주하는 모든 가족이 안정적이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사항은 청주시가족센터 사례관리사업(☎043-295-1817)으로 연락하면 된다.

충북북부장애인권익옹호기관 공식 개관

충주·제천·단양 장애인 인권침해 대응



지난 19일 열린 충북북부장애인권익옹호기관 개관식에서 내빈들이 기념사진 촬영을 하고 있다.

충북북부장애인권익옹호기관(관장 김명기)이 지난 19일 충주에서 개관식을 갖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이날 개관식에는 김명기 관장에서 개관식을 갖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이날 개관식에는 김명기 관장

장애인부모연대 회장, 장애인 복지 유관 기관 관계자 등 100여명이 참석해 개관을 축하했다.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지난 2017년 출범 이후 현재 전국 각지에 19곳이 운영되고 있다. 충북북부장애인권익옹호의 기관은 사단법인 충북장애인부모연대(회장 민용순)가 위탁받아 운영되고 있으며, 충주·제천·단양 지역 장애인 인권침해와 학대에 대응해 장애인 권익을 증진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김명기 관장은 "장애인 학대와 관련해 원스톱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3개 시·군 장애인 복지 기관·단체와 협력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장애인 인권 친화적 지역 사회를 선도하는 기관이 되겠다"고 말했다.

청주흥덕시니어클럽, "이웃간 마음을 전해요"

지역내 어린이집·경로당 등과 협력해 이벤트 진행



청주흥덕시니어클럽에서 진행한 행사에서 회원들이 카네이션을 받고 기념사진 촬영을 하고 있다.

가정의달 5월을 맞이하여 청주흥덕시니어클럽(관장 정미정)에서 청주시 내 위치한 경로당, 초등학교, 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와 협력하여 지역의 구성원들간 마음을 나누는 작은 이벤트를 진행했다. 이번 기념행사는 죽천어린이공원을 포함한 청주시 내에 위치한 7개소 어린이공원에서 청주흥덕시니어클럽의 실버공원지킴이 참여 회원과 공원 주변에 위치한 어린이집 아동이 함께 1·3세대가 소통하고 화합하는 시간을 가졌다. 어린이집 아이들은 어버이날 기념 직접 준비한 선물·감사 카드 전달, 참여회원은 간식꾸러미와 아이들을 위해 덕담을 나누는

행사를 진행했다. 특히 한빛지역아동센터(센터장 김현주)에서 어르신들을 위한 축하공연으로 우쿨렐레 연주를 통해 감사의 마음을 전해주었다. 기념행사에 참여한 회원들은 "이번 행사로 아이들을 통해 위로를 받았다"며 쾌적하고 안전한 공원을 위해 시설물 관리, 환경미화 활동 등 지속적인 노력을 하겠다"라는 말을 전했다. 기념행사에 참여한 어린이집 원장은 "지역주민들을 위해 언제나 노력하시는 모든 참여자 어르신들에게 감사드리며, 점점 가족 수가 줄어들고 있는 핵가족 사회에서 이러한 기회를 통해 아이들이 할머니, 할아버지와 함께하는 추억을 만들고 좋은 공부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 이러한 지역사회 행사에 자주 참여하고 싶다"고 말했다. 문의사항은 청주흥덕시니어클럽(☎043-237-0228-9)으로 하면 된다.

충주시니어클럽, '재가어르신 초청, 구순잔치'

올해 6번째 진행... 어르신들의 행복·장수 기원

충주시니어클럽(관장 김익희)은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지난 23일 '재가 어르신 초청, 구순잔치' 행사를 개최했다. '사랑해 효(孝), 함께해 효(孝) 어르신, 만수무강하세요!'란 부제로 진행된 이번 행사는 충주지역 내 노인일자리 참여자 및 9988행복지킴이 서비스 대상자(수요자) 중 구순을 맞이하신 어르신 43명을 모시고 행사를 진행했다. 그동안 코로나19로 인해 더욱 소외감을 많이 느껴왔을 어르신께 유대관계를 강화하여 심리·정서·사회적인 고립감을 해소시키는 기회가 되었으며 또한, 지역사회와의 화합과 공감의 자리를 통해 긍정적인 노인상을 제시, 경로효친 사상의 의미를 되새길 수 있는 시간이 됐다.

충주시니어클럽이 주최·주관한 이날 행사에는 오대양횃집(대표 이명숙)에서 행사 장소와 구순잔치 특별식사를 제공하였으며, 지역 내 기업·단체·개인이 후원금과 기념물품을 후원하는 등 함께 뜻을 모아 그 의미를 더했다. 김익희 관장은 "어르신들에게 공경의 마음을 전하고 동참해 주신 후원 기관 및 관계자 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구순을 맞이하신 어르신들의 행복과 장수를 기원드린다"고 말했다.

충북

내게 꼭 맞는 사회복지정보를 한눈에!

정답은 **충북복지넷**!

www.043w.or.kr

SSN 충청북도사회복지협의회
Chungcheongbuk-do Council on Social Welfare

'내가 받을 수 있는 복지서비스' 한눈에

'2023 나에게 힘이 되는 복지서비스' 안내책자 발간

460여개 복지정책 담겨... 온라인 다운로드 가능



보건복지부는 여러 부처에 흩어져 있는 복지서비스를 국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2023 나에게 힘이 되는 복지서비스' 안내 책자를 개정 발간했다.

안내 책자에는 국민이 자신이 처한 상황에 따라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확인할 수 있도록 내용을 담고 있고, 생애주기별·대상 특성별·가나다순 색인도 제시하여 복지서비스를 쉽게 찾아보고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이번 안내 책자는 약 460여 종류의 전 부처 복지사업을 기준으로 올해 새롭게 도입되는 사업과 변경되는 내용을 담았다.

복지부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지역자활센터, 고용센터, 공공기관, 사회복지시설 등 전국 8000여 개 기관에 약 17만부 책자를 배포한다.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위원회, 복지포, 사회보장정보원 홈페이지에서도 자료를 내려받을 수 있다.

●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가요?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해드립니다.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p.16), 기초생활수급자를 위한 요금감면제도(p.18), 긴급복지 지원제도(p.20), 가족희망드림 지원·희망복지지원단 통합사례관리사업(p.22), 주택임대사업(p.23), 가사·간병 방문 지원사업(p.43) 등

생계를 유지하기가 힘들 때

생계유지가 어려운 분들에게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교육비 등을 지원합니다.

▶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 ▶

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① 소득인정액 기준, ② 부양의무자 기준(의료급여에 한함)을 충족하는 저소득층 수급권자에 대해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를 행하여 최저 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유도하는 제도로 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 해당 급여 지원

* '23년도 급여별 선정기준(1인가구) : 생계급여 623,368원, 의료급여 831,157원, 주거급여 976,609원, 교육급여 1,038,946원

※ 생계급여의 경우 생계와 주거를 달리하는 1촌 혈족(배우자 포함)의 소득 재산이 일정기준을 초과(연 소득 1억 원, 재산 9억 원) 할 경우 보장 불가

내용 각 가구의 특성이나 처한 상황에 따라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교육비 등을 지원

생계급여 가구별 생계급여 선정기준에서 소득인정액을 뺀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

▶ 지원액

• 소득인정액이 60만 원인 4인 가구의 경우 : 생계급여 선정기준인 162만 289원에서 60만 원을 뺀 102만 290원 지급(월 단위 월급)

의료급여 질병, 부상, 출산 등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낮은 본인부담으로 이용

▶ 의료급여 본인부담금 수준

구분	1차(의원)	2차(병원)	3차(상급종합병원)	약국	PET 등	
1종*	입원 외래	없음 1,000원	없음 1,500원	없음 2,000원	- 500원	- 5%
2종**	입원 외래	10% 1,000원	10% 15%	10% 15%	- 500원	10% 15%

* 1종 : 근로능력평가구, 희귀 중증난치성질환자, 중증질환자(암환자, 중증화상환자만 해당), 시설수급자

** 2종 : 의료급여수급자 중 1촌 수급대상이 아닌 가구

주거급여 • 임차가구 : 지역 및 가족 수에 따라 산정한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월임차료+보증금 환산액)를 지원
• 자가가구 : 구조안전·설비·마감 등 주택 노후도를 평가(중·대 보수로 구분)하여 종합적인 주택개량 지원

구분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
수선비용(중기)	457만 원(3년)	849만 원(5년)	1,241만 원(7년)
수선예시	도배, 정반 등	오금수, 난방 등	지붕, 기둥 등

※ 장애인 자가가구 수급자 : 주거역자용 편의시설*을 380만 원 한도 내에서 추가로 설치

※ 고령자(만 65세 이상) : 주거역자용 편의시설*을 50만 원 한도 내에서 추가로 설치

* 장애인 추가자용과 고령자 추가자용은 중복지원 불가, 장애인이면서 고령자인 경우 장애인 추가지원 적용

교육급여 교육활동지원비, 교과서대, 고등학교 입학금 및 수업료 지원

구분	교육활동지원비(바우처)	교과서	입학금 및 수업료
초등학교	41만 5,000원	-	-
중학생	58만 9,000원	-	-
고등학생	65만 4,000원	해당 학년의 정규 교육 과정에 편성된 교과목의 교과서 전체	학교장 고지 금액 전액
지급횟수	연 1회	연 1회	입학금은 입학 시 1회, 수업료는 분기별 지급

▶ 그 밖의 지원

구분	지원내용
해산 급여	출산(예정)한 경우 아이 1명당 70만 원(생애이는 140만 원) 지급 ※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수급자에게만 지원됩니다.
장제 급여	사망한 경우 장례를 치르는 사람에게 사망자 1인당 80만 원 지급 ※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수급자에게만 지원됩니다.

방법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신청

문의 • 생계·의료급여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주거급여 : 주거급여 콜센터(☎1600-0777)
나마이홈(☎1600-1004, www.myhome.go.kr)
• 교육급여 : 한국장학재단 교육급여 바우처 콜센터(☎1599-2000)

● 일자리를 찾고 계신가요?

안정적 일자리를 마련하고 취업을 돕습니다.

-실업급여(p.52), 국민취업지원제도(p.54), 허그일자리지원 프로그램(p.56), 희망저축계좌(p.58), 청년내일저축계좌(p.59), 근로장려금(p.60), 여성 경제활동 촉진 지원사업(p.62), 중장년 일자리 지원사업(p.66), 청년 일자리 지원사업(p.69) 등

실직으로 곤란을 겪고 있을 때(생활안정 지원)

직장을 잃은 분들이 다시 직장을 구하는 동안 생계비 등을 지원해 드립니다.

▶ 실업급여 ▶

대상 회사를 그만두기 이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예술인은 24개월 동안 9개월 이상, 노무제공자는 24개월 동안 12개월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근무하고, 본인이 원하지 않았음에도 퇴사한 후 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사람
• 회사 사정으로 인한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사업장 휴·폐업 등 정당한 이직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지원 가능

내용 이직 당시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120~270일간 이직 전 평균임금 60% (예술인·노무제공자는 이직 전 평균보수의 60%)의 구직급여 지급
※ 1일 상한액은 6만 6,000원, 1일 하한액은 근로자 최저임금의 80%(소정근로시간 8시간 기준 6만 1,568원), 예술인·노무제공자는 기준보수의 60%(예술인 1만 6,000원, 노무제공자는 2만 6,000원)

방법 • 퇴직 후 신분증을 지참하여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신청
• 실업신고 및 수급자격 인정 신청(이직자) → 수급자격 처리 및 실업인정일 지정(고용센터) → 재취업활동(수급자) → 실업인정 및 구직급여 지급(고용센터)

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 알려드립니다

• **실업급여는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 실업급여는 이직 후 12개월 이내에 본인의 소정수급일수를 한도로 지급하기 때문에 퇴직 후 지체 없이 실업신고(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를 해야 합니다.

• **부정할 실업급여 수급은 반드시 신고해 주세요.**
- 허위신고, 취업사실 미신고 등 거짓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았거나 받으려고 하는 것은 부정수급으로 형사 처벌을 받는 범죄행위입니다. 부정행위로 지급받은 실업급여 전액을 환수하고 최대 5배의 추가징수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를 신고하면 최고 500만 원(부정수급액의 20%)의 포상금이 주어지고, 피보험자와 사업주가 공모한 경우에는 포상금이 5,000만 원으로 상향됩니다. 제보자의 신분은 철저히 비밀을 보장합니다.

● 아이를 낳는 것도 키우는 것도 걱정이시죠?

부담없이 아이를 낳고 기를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p.80),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p.85), 첫만남이용권(p.87),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p.88), 출산 전후 휴가 급여 지원(p.90), 보육료 지원(p.95), 방과후 돌봄(p.111) 등

아이 보육에 도움이 필요할 때

아이들을 경제적 부담 없이 키울 수 있도록 보육비를 지원하고 돌봄서비스를 제공해 드립니다.

▶ 만 0~2세 보육료 지원 ▶

대상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 0~2세 아동
※ '22년 이후 출생한 만 0~1세의 경우 부모급여(보육료) 수급자가 보육료 지원
내용 나이에 따라 월 37만 5,000원 ~ 51만 4,000원의 보육료를 국민행복카드로 지원

방법 • 전국(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 복지포(www.bokjiro.go.kr)에서 신청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아이사랑 헬프데스크(☎1566-3232)

▶ 자주 하는 질문

• **보육료 신청을 꼭 해야 하나요?**
- 보육료, 양육수당, 부모급여(현금), 유아학비, 아이돌봄 등 보육서비스는 수급자의 의사 확인을 위해 서비스 신청 이후에 지원하고 있으므로, 반드시 신청 절차에 따라 신청해야 합니다.
• 보육료는 신청일부터 지원 가능하므로 어린이집 이용 전 사전 신청이 필요합니다.

• **보육료, 유아학비 서비스 변경 기준은 무엇인가요?**
- 변경 신청일부터 변경서비스를 지원합니다.

▶ 알려드립니다

• **연장보육 이용 안내**
어린이집 이용 아동에게는 동일한 기본보육료가 지원되고, 오후 4시 이후 추가적 돌봄이 필요한 아동에게 연장보육료가 지원됩니다.
※ 연장보육이 필요한 경우 자격을 신청해야 하며, 미신청 아동의 경우에도 긴급한 보육 수요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어린이집에 이용신청 후 연장보육 이용이 가능합니다.

● 교육, 자립을 위한 지원이 필요하신가요?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동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보호 및 자립지원(p.116), 청소년 보호 및 상담(p.121), 청소년 역량 강화(p.131), 교육비 지원(p.135) 등

교육비가 부담될 때(교육비 지원)

저소득층 자녀가 차별 없이 공부할 수 있도록 교육비를 지원해 드립니다.

▶ 기초생활보장(교육급여) ▶

대상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의 자녀

내용 교육활동지원비, 교과서비, 입학금 및 수업료 지원

구분	교육활동지원비(바우처)	교과서	입학금 및 수업료
초등학교	41만 5,000원	-	-
중학생	58만 9,000원	-	-
고등학생	65만 4,000원	해당 학년의 정규 교육 과정에 편성된 교과목의 교과서 전체	학교장 고지 금액 전액
지급횟수	연 1회	연 1회	입학금은 입학 시 1회, 수업료는 분기별 지급

방법 거주지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또는 온라인 누리집(복지포(www.bokjiro.go.kr), 교육비 원클릭시스템(onedclick.moe.go.kr), 교육급여 바우처(e-voucher.kosaf.go.kr))으로 신청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한국장학재단 교육급여 바우처 상담센터(☎1599-2000)

● 건강에 문제가 있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확대하고 의료비 부담을 줄입니다.

-건강보험제도(p.162), 의료급여제도(p.166), 국가건강검진제도(p.172), 의료비 지원(p.175), 정신건강 증진 프로그램 지원(p.177),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p.180) 등

의료비 부담을 덜고 싶을 때(건강보험)

과도한 의료비 지출을 예방합니다.

▶ 건강보험제도 ▶

대상 국내에 거주하는 전 국민(의료급여수급자 제외)
• 직장가입자 : 근로자 및 사용자, 공무원 및 교직원과 그 피부양자
• 지역가입자 : 직장가입자와 그 피부양자를 제외한 자

구분	지원내용
요양급여	진찰 검사, 약제 치료재료의 지급, 처치 수술 기타의 치료, 예방 재활, 입원, 간호, 이송에 대한 요양급여 제공
요양비	• 만성신부전증환자, 당뇨병환자, 신경안정병환자의 소모성재료의 일부 지급 • 산소치료, 인공호흡기, 기침유발기(치료)가 필요한 환자, 수면무호흡증 환자의 치료를 위해 사용하는 압박기 등 기기 대여료(소모품)의 일부 지급 • 1월 당노병 환자의 연속질당측정기, 인슐린자동주입기 구입금액 일부 지급
건강검진	건강검진 실시(2년에 1회, 비사무직은 매년) - 국가건강검진제도 참조(본 책자 172p)
임산·출산 진료비	임산 출산 진료비 100만 원을 국민행복카드로 지급 (다태아 140만 원, 분만 취약지 거주 임산부 20만 원 추가 지급) - 임신 출산 진료비 지원 참조(본 책자 85p)
장애인보조기기 구입비	장애인보조기기 구입금액 일부 지급

방법 • 직장가입자 : 직장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
• 지역가입자 : 직장 실적, 퇴직 시 지역가입자로 전환

문의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 알려드립니다

• **피부양자란?**
- 직장가입자에 의존해 생활을 유지하며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자로 배우자, 부모·조부모(배우자의 부모·조부모 포함), 자녀·손자녀(배우자의 자녀·손자녀 포함) 및 그 배우자, 형제·자매를 포함합니다.

● 어르신들, 생활이 건강이 걱정 많으시죠?

재정, 의료, 일자리 등 노년의 삶의 질을 높여드립니다.

-기초연금제도(p.184),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p.188), 의료지원(p.190), 노인맞춤돌봄서비스(p.195), 요금감면 제도(p.198) 등

안정적인 노후생활 지원이 필요할 때

노후를 미리 준비하지 못했거나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어르신들에게 일정한 연금을 지원해 보다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돕습니다.

▶ 기초연금제도 ▶

대상 만 65세 이상이며,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소득하위 70%) 이하인 어르신

구분	선정기준액	월 최대 지원 금액	
		단독가구	부부가구
소득하위 70%	단독가구 202만 원, 부부가구 323만 2,000원	월 최대 32만 3,180원	월 최대 51만 7,080원 (1인당 최대 25만 8,540원)

방법 •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 복지포(www.bokjiro.go.kr) 온라인 신청
※ 만 65세 미만인 분은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 초일부터 신청 가능
• 방문이 어려운 경우 국민연금공단의 '찾아가는 서비스(☎1355)'를 신청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국민연금공단 콜센터(☎1355)
• 기초연금 누리집(basicpension.mohw.go.kr)

▶ 알려드립니다

• 기초연금의 선정기준이 되는 소득인정액은 어르신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반영됩니다.(부양의무자 기준 미적용)
• 근로활동을 하는 어르신의 근로의익이 저하되지 않도록 일용근로소득, 공공일자리소득, 자활근로소득은 소득으로 산정하지 않습니다.
• 직역연금 수급권을 가진 어르신은 기초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2023년, 이렇게 달라집니다

• 2023년 1월부터 기초연금 상시근로소득에서 108만 원 공제 후 30% 추가 공제가 적용됩니다.
※ (22년) 103만 원 ~ (23년) 108만 원

● 장애인을 위한 복지서비스, 어떤 것이 있을까요?

차별과 불편 없이 사회 구성원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해드립니다.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p.206), 장애아 보육료 지원(p.207), 교육지원(p.211), 직업능력개발 및 일자리 지원(p.214), 자립자금 대여(p.226), 의료비 지원(p.230), 활동지원(p.240) 등

장애로 인해 생활이 곤란할 때

장애로 인해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이 보다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매월 일정 금액을 지원해 드립니다.

▶ 장애인 등록신청 ▶

대상 지체·시각·청각·언어·지적장애 등으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제약 받는 사람

내용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발급 후 국가 및 지자체의 각종 복지서비스 제공

방법 본인, 법정대리인 또는 보호자가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신청
※ 민원인 제출 서류
- 사진(3.5cm X 4.5cm) 1장(주민등록증 발급을 위한 사진자료 활용에 동의하는 경우 제출 생략)
- 재외동포나 외국인의 경우 필요 시 혼인신고 증명서류
- 장애정도 심사를 전담 시 구비서류

문의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복지광장



석진
신백아동복지관장

지난 4월 베를린 여행 사진을 정리하며 나는 여전히 여행객에 불과했다고 생각했다. 베를린 여행을 준비하며 많은 자료를 살펴보고 조사, 정리하는 시간을 보냈다. “식민시대의 아픔, 전쟁과 분단 70주년을 지난 4·3, 아직도 진실을 다루는 5·18과 4·16... 세월호와 같은 커다란 상처를 딛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야 할 때 우리는 무엇을 기록으로 남기고 어떻게 기록해야 할까?”

“시간여행으로 만난 친구들”

이 여행은 우리의 미래를 위한 '기억 만들기' 운동의 시작이기도 하다. “여보세요~ 이번 여행 함께하시는거죠..” 삼월 어느 늦은 밤 여행은 이미 시작됐다. 여행을 가는 것, 사진을 찍는 것, 맛있는 음식을 먹는 것, 책을 읽는 것.. 언젠가부터 생각의 속도들이 느리게 또 깊게 반복되고 있다. 호기심과 설렘이, 가슴속 깊은 두려움과 아픔이, 신기한 기분이라고 해야 할까.. 베를린 프리드리히슈트라세역에 도착했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사망한 유대인 어린이들과 살아남은 어린이들을 기억하려는 작품 '살아오가는열차 - 죽음으로가는열차' 동상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다. 1939년 체코프라하에서 영국 리버풀로 향하는 열차가 출발했고 열차 안에는 190명의 유대인 어린이가 타고 있었다. 기차를 운행한 사람은 '영국의 심들러'로 불리는 니콜라스원튼으로 나치의 학살로부터 유대인어린이들을 지키기 위해 기차를 운행했다. 그해 9월까지 모두 669명의 유대인 어린이가 기차를 타고 영국의 가정으로 옮겨져 목숨을 구했으나 마지막 9번째 기차에 탔던 250명의 아이들은 나치에

발각되면서 목숨을 잃었다. 프리드리히슈트라세역은 유대인 어린이들의 마지막 비상구였다. 첫 열차가 떠나 뒤 70년이 지난 2008년 당시 기차를 타고 출발한 유대인 어린이이기도 했던 이스라엘 조각가 프랭크 크마이슬러는 '살아오가는열차 - 죽음으로가는열차' 동상을 역앞에 세웠다. 열차를 운행한 니콜라스 원튼에 대한 감사와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사망한 유대인 어린이들과 살아남은 어린이들을 기억하려는 작품이다. 베를린은 분단과 통일을 경험한 곳이다. 1961년~1989년 분단의 상징이었던 장벽과 그 장벽을 넘으려다 희생된 사람들이 허물어진 장벽공원에 기록되어 있다. 베를린은 통통후 마이너리티 예술가들이 모여든 곳이다. 그들은 버려진 나치의 상징 공간들을 마을의 문화 공간으로 재생의 현장으로 바꾸고 있다. 그 무엇보다 베를린은 일상 속 '기억 문화'를 만들어 온 곳이다. 우리의 걸림돌 프로젝트(stolpersteine) 나치의 분서갱유가 있었던 훔볼트대학 앞 베벨광장의 '도서관' 홀로코스트 추모비 등 베를린 곳곳에서 그 일상 속 기억문화

를 마주할 수 있다. 도시는 우리를 역사 속으로 또 기록과 기억 속으로 끌고 갔다. 울컥하는 마음, 눈물, 알 수 없는 슬픔이 함께 숨 쉬고 있었다. 베를린은 나치와 나치에 의한 제노사이드를 직접 겪은 현장이다. 나치의 학살에서 예외일 수 없었던 아이들의 삶과 죽음이 갈리던 순간도 아프지만 또렷하게 새겨두고 있었다. 우리의 미래를 위한 '기억 만들기' 운동의 시작 베를린 여행을 기록한다. 추모하는 마음만으로는 알 수 없는 깊이가 있었다.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영원히 기억하는 일로 대신하겠다고 다짐을 해 본다. 베를린 도시의 어두컴컴한 공원길은 화려하고 밝은 길에 익숙한 우리에게 시대를 초월하여 두려움과 공포감을 느끼게 하는 기억문화가 자리한 곳이다. 이 도시가 아픔을 기억하는 방식이 깊어 느껴졌던 여행이었다. “Wir Gedenken...” 생각하고, 기억하고, 기념한다. 오월! 따뜻하고 청명한 하늘을 올려다 보며 오랜 시간 속에 별이 된 친구들을 기억하고, 나는 겸손하고 감격하는 마음으로 햇살 같은 아이들을 마주해 본다.

복지포럼

세계인의 날, 차별이 아닌 다름을 생각하며



조미선
충주시가족센터 사무국장

5월은 어린이날, 어버이날, 부부의 날 등 가족을 위한 날이 많아 보통 가정의 달이라고 한다. 그중 5월 20일은 세계인의 날로 다양한 민족·문화권의 사람들이 서로 이해하고 공존하는 다문화 사회를 만들자는 취지로 2007년 제정한 법정기념일이다. 다문화 사회란 한 사회 안에 다른 인종과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는 사회라는 의미이다. 나와 다른 문화에 대한 이해와 포용을 담고 있지만, 다문화란 용어의 좋은 의미는 차별적 용어로 전락했다. 이민자를 복지대상자로만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은 이들의 사회 참여 기회를 제한하고 지역주민으로서 자리매김하는 데 걸림돌이 되고 있다. 한 달 전에 있었던 일이다. 출장을 마치고 센터로 복귀하는 길에 휴대전화 벨 소리가 울렸다. “지금 이스라엘 국적의 관광객들을 태운 차량이 사고가 났는데, 러시아어 통역이 필요합니다. 지원 가능한가요?” 라는 내용의 전화였다. 지난 4월 13일, 충주시 수안보 면에서 관광버스 전도 사고로 이스라엘 국적의 관광객 33명 중 1명이 사망하고 32명이 중·경상을 입은 일이다. 사건 발생 직후 사고 당사자들은 충주 및 인근지역의 병원으로 이송됐다. 이들의 치료를 위해 원활한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통역사 지원이 필요했고, 이에 우리 센터로 연락을 취한 것이다. 지역에서는 러시아어 통역사 1명을 찾기도 쉽지 않는데 최소 4명의 통역사를 지원하기는 더욱이 어려운 상황이었다. 다행인 것은 우리 센터에서는 전문 통번역지원사 뿐만 아니라 결혼이민자 중 일상적인 부분에 대한 통역이 가능한 인력풀을 보

유하고 있다. 당일 러시아어가 가능한 이민자 1명과 외국인 근로자 1명을 지원했으며 센터 직원들도 동행했다. 충주에 있는 4곳의 병원에 환자들이 이송되어 있었고, 우리는 이 중 2곳에 통역을 지원했다. 우리 통역지원사들은 자정이 넘어가는 시간 동안 그들이 안전하게 입원 절차를 마칠 때까지 함께 했으며, 다음 날도 이민자 1명이 입원환자 회진 때 통역을 지원했다. 해당 여행객을 모집했던 여행사에서 통역을 지원한 분들에게 통역비를 제공하겠다고 연락을 취했으나, 통역사가 정중하게 사양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소식을 듣고 사양한 이유를 물어보니, “내가 한국에 잘 적응할 수 있게 한국어 교육이나 프로그램을 받고 있으니, 나도 이 정도의 지원을 받을 수 없다”라고 답했다. 사고 이후, 주한 이스라엘 대사가 충주시에 방문하여 자국 관광객을 보살펴준 데 대해 사의를 표한 것에 관한 기사를 접했다. 기사 내용 중 “사고 당시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었을 이스라엘 국민을 위해 통역을 지원하고 병원마다 전담 직원을 배치하는 등 세심하게 배려해주 감사하다”라고 대사가 전한 말이 있었다. 주한 이스라엘 대사의 인사내용에서 알 수 있듯이 이민자들이 아니었다면 외국인 관광객들과 원활한 의사소통이 어려웠을 것이고 빠른 수술 또한 어려웠을 것으로 생각한다. 이번 일은 이민자를 복지대상자로만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을 전환하는 사례가 될 것이다. 우리는 이들이 가진 이중언어와 같은 다양한 강점을 강화할 수 있도록 도움으로써 사회참여 기회를 늘리고 지역사회에서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사회구성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 이민자에 대한 인식을 동등한 사회구성원, 우리의 가까운 이웃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우리의 세계시민의식을 차별이 아닌 다름으로 인지한다면, 다문화 사회가 차별적 용어가 아니라 한 사회 안에서 다른 인종과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는 사회라는 본래 의미를 되찾을 것이라고 기대한다.

현장의 목소리



김정임
충주시가족센터 과장

우리나라 표준국어대사전에서 가족의 개념은 주로 '부부를 중심으로 한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들의 집단, 또는 그 구성원, 혼인, 혈연, 입양 등으로 이루어진다' 라고 나와 있다. 보통 사람들은 가족이란 사전에 나와 있는 의미처럼 친족관계 및 법적으로 이루어진 관계일 경우 가족이라는 개념을 생각하기 쉽다. 가구라는 의미도 비슷하다. 사전적 의미로 가구는 집안 식구, 현실적으로 주거 및 생계를 같이하는 사람의 집단이라고 나와 있다. 이렇듯 가족의 의미는 중요하게 다뤄져 왔고 특히 우리사회에서의 가족의 의미는 문화적·제도적으로 또 일상생활의 관점에서 사회를 구성하는 기본적

“가족을 위한 가족에 의한 충주시가족센터”

질서 체계로 자리 잡고 있다. 그러나 언제부턴가 여성의 사회진출 확대, 경제적 측면, 가족부양 기능측면, 가족관계와 문화적 측면에서 가족은 매우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가족의 구성과 유형이 다양해지고 지금까지 생각했던 가족구성비의 비중은 감소하고 현재 초핵가족화, 특히 2015년부터 2023년 현재 1인가구 비중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급속한 가족의 변화와 다양한 가족형태에 대한 수용을 위하여 정부는 건강가정기본법에 따라 가족의 삶에 대한 기초 자료를 수집하고 이를 바탕으로 가족정책을 5년마다 수립하고 있고 현재 건강가정기본계획이 4차까지 수립됐다. 제1차에서 3차 기본계획은 가족 구성원 모두 행복하고 평등한 사회를 지향하며 가족형태 다양화, 결혼가족에 대한 관심 변화 등 가족환경 변화 대응 그리고 일·생활이 조화로운 사회가 정책목표였다. 3차 기본계획의 가족형태의 다양화를 바탕으로 4차 기본계획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비혼동거가족, 1인가구 등 여러 형태의 가족형성과 다양화에 대한 수용과 포용을 중심으로 계획됐다. 물론 이외에 저출산, 경제적부분, 돌봄 등 여러 가족의 기능에 대한 정책이 수립되어 있지만 그만큼 과거 사전적 의미에서의 가족의 개념은 많이 변화했다는 것이다.

충주시가족센터는 건강가정기본법, 다문화가족지원법 그리고 건강가정기본계획과 다문화가족 기본계획에 의해 수립된 가족정책기관이다. 2007년, 2006년부터 각각 운영되고 있었던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2017년 통합되어 지금의 가족센터라는 명칭으로 운영되고 있다. 건강가정기본법을 근거로 설립되어 운영되고 있던 건강가정지원센터는 가족교육·문화·상담사업을 필수로 가족사례관리, 아이돌봄지원, 공동육아나눔터사업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다문화가족지원법을 근거로 설립되어 다문화가족을 위한 한국어교육, 방문지도, 언어발달지도, 이중언어환경조성사업 등 한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특히 결혼이민자를 위한 자립지원 등 다양한 서비스를 지원했다. 이렇게 각각의 센터는 여성가족부의 건강가정 5개년 계획과 다문화가족 5개년 계획을 바탕으로 정부의 가족정책을 현장에서 실천하는 역할을 했고 이는 통합된 지금의 가족센터에서도 같은 기능을 가지고 운영하고 있다. 본 가족센터는 '행복한 가족과 하나된 지역공동체를 향해갑니다' 라는 미션, '참여와 공존을 통해 평등하고 존중하는 가족을 만들어갑니다' 라는 비전으로 운영하고 있다. 가족의 안전, 가족이 서로 존중하는 사회형성, 가족의 평등함 추구하고 소통

하는 사회 실현이라는 핵심가치를 가지고 추진과제를 수립했다. 또 건강가정기본계획을 바탕으로 다양한 가족의 포용성 확대, 문화다양성과 공동체 가치 실현, 안전한 돌봄공동체 강화 등의 중점과제를 가지고 앞으로도 가족서비스 기능을 확대할 예정이다. 특히 전국평균보다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충주시의 1인가구를 위한 지원강화와 위기가족 보호, 문화다양성 이해교육 확대, 외국인과 미등록 아동 지원 등 타 복지관과 다른 부분의 가족중심 통합서비스를 운영하고 강화할 것이다. 10년은 노인복지 현장에서 10년은 현재 가족센터에서 사회복지 업무를 하며 다양한 가족을 만날 수 있었고 지금도 만나고 있다. 2011년 건강가정지원센터에 입사하여 미혼모가족을 처음 만났고 한부모모자와 부자가족, 북한이탈가족 등 노인복지 현장에만 있었던 나는 그동안 우물안개구리였구나 하는 생각이 많이 들었다. 개인이 아닌 가족을 대상으로 복지사업을 하는 것이 처음에는 매우 낯설고 사회복지사로서 잘못된 인식과 편견이 있었던 부분도 깨달았다. 지금은 우리 사회의 가장 중요한 기본단위인 가족을 위한 가족에 의한 가족복지라는 것에 뿌듯함과 자부심을 가지며 앞으로도 가족의 변화에 대응하며 정진할 것이다.

똑똑똑! 법률상담입니다.

취약계층 법률 상담 서비스 법률상담터

법률상담터

법무부 소속 변호사가 취약계층에게 1차 무료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찾아가는 법률주치의 제도'

지원 대상

기초수급자·다문화가족·범죄피해자 등 법률 복지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내용

법률상담, 법교육, 소송절차 안내, 법률구조법인 및 사회복지기관 연계 등의 법률서비스 지원

도움 받을 수 있는 분야

채권·채무 손해배상
근로관계·임금 개인회생·파산
이혼·친권·양육권 생활법률 전반

신청방법

시간 월~금 10:00~17:00(공휴일 제외)
전화 043-238-0843
사무실 충북 청주시 흥덕구 공단로 87
충북종합사회복지센터 302호



이 달의 법률상식

임차인의 원상회복의무



신덕범 변호사
법무법인 YK

Q 상가 임차인 A는 임대하려는 임대점포에 기존 시설이 어느 정도 설치되어 있었고, 기존 시설물을 그대로 인수받아 임차를 했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시설에 자신의 비용을 추가해 시설을 하여 영업을 하였습니다. 이후 임대기간 만료 후 임대인 B는 A에게 처음 점포 인수 시 있었던 기존 시설물까지 포함하여 원상회복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임차인의 원상회복 범위는 어디까지 인가요?

A. 상가 임대차 표준계약서는 임차인의 원상회복의무에 관하여 "계약이 종료된 경우에 임차인은 임차 상가건물을 원상회복하

여 임대인에게 반환하고 이와 동시에 임대인은 보증금을 임차인에게 반환하여야 한다"고 간단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임차인의 원상회복의무는 최초 준공 상태의 건물에 임차인이 영업을 개시했다면 건물 처음의 상태로 되돌려야 한다는 해석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전 임차인이 사용하던 건물을 그대로 인도받아 건물을 사용한 경우는 현재의 임차인이 직접 시설하지 않은 부분까지도 원상회복의무가 인정될지 명확치 않으며 대법원 판례 역시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달리 판단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는 '다른 특약이 없는 한 A씨의 경우와 같이 자신이 직접 시설한 범위 내에서 원상회복의무를 이행하면 되고 전 임차인이 시설한 것까지 원상회복의무를 지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계약 관계에 따라 원상회복의무를 범위가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만약 임대차기간이 종료되어 후속임차인이 임대인과 완전히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이라면 A씨의 경우처럼 직접 시설한 것에 한해 원상회복의무를 지지만 임대차계약기간 도중 임차인의 지위를 이전 받는 형식으로 동일한 임대차계약을 이어 받았다면 전 임차인이 시설한 것까지 원상회복의무를 지게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원상회복의무에 대해 서로 이견이 발생할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반드시 특약사항에 원상회복의무를 자세히 규정하여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것입니다.

복지정보 제공

[새생명지원센터, 2023년 청소년부모·자립지원패키지사업 안내]

- 신청대상: 충청북도 거주 만 24세 이하 한부모, 만25세 이상 미혼모·부(혼인기록이 없고 사실혼 관계가 아닌자)
- 사업기간: 2023. 1. ~ 2023. 12.
- 지원내용: 양육용품 및 병원비 지원(연 100만원 이내), 상담, 전문심리치료, 멘토링 지원, 출산 진료비, 건강관리, 자녀양육(돌봄) 연계 등, 주거·교육·취업지원 등
- 문의 및 신청: 새생명지원센터(1577-3053)

[청주시가족센터, 보호아동청소년 원가정기능 회복지원사업 "우리 가족이 하나되는 순간: 가족의 온도 36.5"]

- 신청대상: 원가정 기능회복을 희망하는 아동·청소년 가정
- 신청기간: 연중
- 지원내용: 가족상담 및 부모교육, 가족관계개선프로그램 및 가족문화체험프로그램, 사후관리 등
- 지원기간: 2023년 1월 ~ 12월
- 신청방법: 청주시가족센터(043-295-1817)

[청주시가족센터, 함께하면 아름다운 "행복어울림"]

- 신청대상: 한국 생활에 복합적 어려움이 있으며, 스스로 어려움을 해결할 수 없는 다문화가족
- 신청기간: 연중
- 지원내용: (손)자녀 학습멘토링서비스, 가족문화체험, 상담 및 정보제공, 주거 및 법률 자원 연계 등
- 지원기간: 등록시기부터 1년 이내(최대 1년 연장 가능)
- 신청방법: 청주시가족센터(043-295-1817)

[충북사회복지협의회, 2023년도 유니버설디자인체험센터 교육 신청 안내]

- 진행일시: 3월 ~ 12월 (연중 신청가능)
- 진행장소: 유니버설디자인체험센터(청주시 흥덕구 공단로 87, 1층)
- 진행대상: 초·중·고등학생, 대학생, 성인 등 도내 사회복지시설 근무자 및 이용자
- ※ 원활한 교육 진행을 위하여 신청 인원

- 은 회차당 20명 이내로 가능함
- 주요내용: 유니버설디자인(UI) 이론 교육, 유니버설디자인 및 주력체험관 견학
- 신청방법: 전화 접수(T.234-0840~2)
- ※ 담당자와 일정 조율 후 신청서 제출
- 문의: 043-234-0840
- 참고: <https://www.043w.or.kr/>

[제9회 밀알복지재단 스토리텔링 공모전 '일상 속의 장애인']

- 응모기간: 2023.6.1.(목)~7.16.(일)
- 응모주제: 일상속의 장애인(장애 또는 장애인과 관련된 실제 경험담)
- 응모자격: 장애인과 비장애인 누구나 참여 가능
- 응모분야: 수필(에세이)
- 응모규격: A4용지 3매 이내 등
- 응모방법: 온라인, 이메일 중 택1 접수
- 시상내역: 대상, 최우수상, 우수상, 장려상(부분별 시상인원 및 훈격별 상금 상이)
- 문의: 070-7462-9046
- 참고: www.miral.org

[2023년 26회 전국중고생자원봉사대회 응모안내]

- 접수기간: ~2023.6.7.(수)까지
- 응모자격: 국내 중고교 재학 중 또는 이에 준하는 청소년(개인, 동아리)이면 누구나
- 응모주제: 2021년 7월 ~ 2023년 5월 말까지 진행한 자발적인 봉사활동 사례 소개
- 접수방법: 전국중고생자원봉사대회 홈페이지에서 신청서 작성 및 출력하여 소속 학교교장 또는 학생봉사활동 관련 기관장의 서명 후 스캔하여 온라인 최종 접수
- 시상내역: 장관상(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교육부) 및 금상: 10건 메달 및 상장, 장학금 각 300만원 / 은상: 30건 은메달 및 상장, 장학금 각 200만원 / 동상: 30건 동메달 및 상장, 장학금 각 100만원 / 장려상: 000건 상장 및 부상
- 참고: www.kblifefoundation.or.kr
- 문의: KB라이프생명사회공헌재단 사무국(02-2144-2200)

[(사)함께만드는세상, 비영리부문 공익활동지원사업 공모]

- 지원대상: 비영리부문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법인, 법인 대상 기부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한 법인 및 단체

- 지원분야: 미래세대, 소외계층, 글로벌, 역량강화, 환경분야

- 신청기간: ~2023.6.7.(수)
- 지원금액: 지원한도 없음/ 심사과정 및 사업조정을 통해 결정 (1개소당 최소 3천만원 지원)
- 제출서류: 홈페이지(bss.or.kr) 참고
- 신청방법: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제출
- 문의: 02-2280-3302

[푸르메재단, 2023 SPC 장애어린이 정형신발 및 인솔 지원사업 안내]

- 접수기간: ~2023.6.8.(목)
- 지원기간: 2023년 7월 ~ 2023년 12월 (6개월)
- 지원대상: 만 18세 이하의 장애가 있는 어린이 중 발 기능 장애, 발의 변형 및 발 길이의 차이 등으로 보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
- 최소한 한쪽 다리와 발로 보행이 가능한 사람
- 지원항목: 정형신발 및 인솔 제작/구입비
- 지원금액: 1인 최대 50만원 한도
- 신청방법: 사례관리자가 가능한 기관 담당자가 신청 (이메일 접수)
- 참고: purme.org

[2023 따뜻한동행 제6회 손잡아줄래 - 장애포용공모사업 신청안내]

- 모집대상: 장애인의 필요를 해소하기 위해 도전하는 설립 5년 이내 팀 또는 예비창업팀(스타트업, 소셜벤처,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비영리단체, 예비창업동아리 가능)
- 모집부문: 일자리창출부문(장애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혁신 모델을 갖고 있는 팀, 사회서비스부문(돌봄, 문화 등 장애인의 필요를 해소하기 위한 혁신 모델을 갖고 있는 팀)
- 지원내용: 사업실현금-총 8,000만원 규모(우수팀에 최대 3,000만원 지원, 순위별 차등지급), 비즈니스 코칭 및 후속지원
- 접수기간: ~2023.6.16.(금) 18시까지
- 접수방법: 제출서류 구비 후 이메일 제출
- 문의: 070-7118-2052 / morejobs@walktogether.or.kr
- 참고: www.walktogether.or.kr

자원 봉사자 모집

- ▶ 독거 어르신 방문형 정서지원 프로그램 관리센터: 산남노인복지센터
활동기간: 6.1 ~ 6.30
전화번호: 043-288-1435
- ▶ 가족관계개선 프로그램 관리센터: 충주종합사회복지관
활동기간: 6.1 ~ 6.30
전화번호: 043-855-3000
- ▶ 인권교육 진행 보조 관리센터: 청주정신건강센터
활동기간: 6.1 ~ 6.30
전화번호: 043-285-0102
- ▶ 기관 내 문구 전자부품 조립작업 관리센터: 충북광화원제안원
활동기간: 6.1 ~ 6.30
전화번호: 043-253-7598

- ▶ 만성정신질환자 재활프로그램 진행 보조 관리센터: 음성군정신건강복지센터
활동기간: 6.1 ~ 6.30
전화번호: 043-872-1883
- ▶ 체력단련실 안내 및 정리정돈 활동 관리센터: 청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
활동기간: 6.1 ~ 6.30
전화번호: 043-275-7411
- ▶ 아이쿰터 및 체험실 관리 관리센터: 충주시육아종합지원센터
활동기간: 6.1 ~ 6.30
전화번호: 043-845-7505
- ▶ 재가 어르신 도시락 배달 관리센터: 괴산군노인복지관
활동기간: 6.1 ~ 6.30
전화번호: 043-834-3411

- ▶ 아동통합 미술교실(5세-7세) 보조 관리센터: 목령종합사회복지관
활동기간: 6.1 ~ 6.30
전화번호: 043-216-3060
- ▶ 이·미용 봉사 관리센터: 충주성심병원
활동기간: 6.1 ~ 6.30
전화번호: 043-843-1432

지역사회봉사단 모집
관리센터: 충청북도사회복지협의회
활동기간: 연중
전화번호: 043-234-0840~2
*자료출처: www.vms.or.kr

지역사회봉사단

나우리회 및 스마일봉사단, 환경정화 봉사활동 진행



충청북도사회복지협의회(회장 김영석) 소속 나우리회(회장 김명동) 및 스마일봉사단(회장 박종득) 등은 지난 4월 30일 단양군 율령

봉 일대에서 환경정화 봉사활동을 진행했다. 나우리회와 스마일봉사단은 각 2010년, 2014년 충북사회복지협의회 지역사회봉사단으로 위촉되어 정기적으로 봉사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스마일봉사단 박종득 회장은 "잘 보이지 않는 곳에 쓰레기가 많이 버려져 있어 안타깝고, 깨끗한 환경을 만드는 가장 중요한 것은 환경을 위하는 마음"이라며 "지속적인 봉사활동을 통해 깨끗한 환경 가꾸기에 앞장 서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지역사회봉사단은 VMS에 가입된 2인 이상으로 구성된 봉사단체로, 전문적인 교육을 통해 다양한 분야에 봉사활동이 가능하다. 지역사회봉사단으로 활동하고자 하는 단체는 충청북도 사회복지협의회 유선(☎043-234-0840~2) 또는 이메일 (mjp7117@naver.com)을 통해 문의 가능하다.

정보통신보조기기 상담 전화 1588-2670

정보통신보조기기가 여러분의 풍요롭고 스마트한 생활을 지원합니다.

컴퓨터 등 정보통신기기 활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정보활용을 용이하게 해주는 정보통신보조기기 및 특수 S/W를 보급합니다.

2023년 정보통신보조기기 신청 안내

보급대상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 한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자 중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자

지원내용 • 보조기기 제품가격 기준 정부지원 80%(나머지 20%는 개인부담)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은 개인부담금의 50% 추가 할인

보급기기 • 시각, 자막/뇌병변, 청각/언어 등 장애유형별 적합한 정보통신보조기기 125종

신청기간 • 2023년 5월 8일(월) ~ 6월 23일(금) ※ 우편으로 신청한 경우, 접수 마감일까지 도착분에 한함

신청방법 • 신청서 등 구비서류를 우편, 방문, 홈페이지(<http://www.at4u.or.kr>)를 통해 거주지(주민등록지 기준) 관할 접수처에 제출

신청서 접수 및 문의처

지역	연락처	지역	연락처	지역	연락처
서울	02-3470-1336	울산	052-229-2345	전북	063-280-2998
부산	051-888-2371	세종	044-300-2418	전남	061-286-2723
대구	053-803-3613	경기	031-4008-3996	광북	054-980-2973
인천	032-440-2324	강원	033-249-2151	경남	055-211-2616
광주	062-613-2612	충북	043-220-2652	제주	064-710-2343
대전	042-270-3214	충남	041-635-37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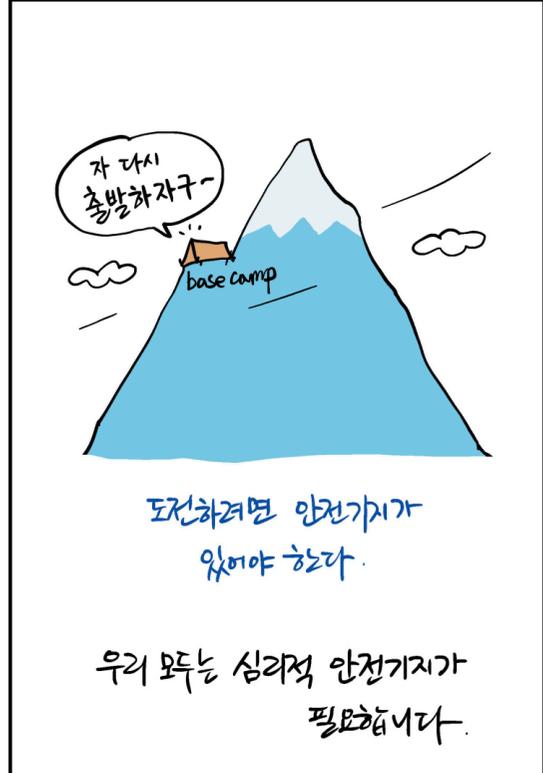
* 협력 및 언어장애인을 위한 통신서비스(스마트이동센터) : 전국 107

과학기술정보통신부 NIA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지방자치단체

복지만평

안전기지

이창신 www.bokmani.com



자 다시 출발하자구~
base camp

도전하려면 안전기지가 있어야 한다.

우리 목표는 심리적 안전기지가 필요합니다.